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177~19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평화 실현을 위한 한국 무교의 역할 -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

朴 日 暎
(가톨릭대학교)

《요약》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 때에, 현대 한국 사회 안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종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토착종교인 무교가 지닌 평화 실현자로서의 역할을 천착하는 학술 작업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토착종교로서 무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종교심성에 기저로 작동한다. 그러한 성격은 무교로 하여금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지니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토착종교인 무교가 한국의 종교 전통의 하나로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천착한다.

민족 공동체의 삶 속에서 문화의 보존과 조화의 전승이라는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전통 종교로서 무교와 평화 실현이라는 역할을 관련지어 보면,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실천을 기대하게 되는 평화실현에 대한 희망의 뿌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근거(根據)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안에서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종교평화교육의 틀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핵심 주제어: 평화, 무교, 종교간 대화와 협력, 종교평화교육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왜 평화인가, 왜 무교의 평화인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류는 이제 희망과 평화에 대하여 새롭게 각성하게 된다. 그런데 종교는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문화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된다. 또한 특정 전통 종교는 특정 문화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¹⁾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토착종교로서 무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종교심성에 기저로 작동한다.²⁾

그러한 성격은 무교로 하여금 한국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지니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토착종교인 무교가 한국의 종교 전통의 하나로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천착하려고 한다.³⁾

평화의 원형[*topia*]은 유감스럽게도 늘 평화의 부재[*u-topia*]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⁴⁾ 최근 벌어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시끄러운 논의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유일 초강대국의 패권주의는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UN의 역할까지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위협받는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이미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른바 북핵(北核) 문제 등으로 불거지듯이 우리 자신의 안위와도 직결되어 있는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등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도 지구의 평화를 호시탐탐 위협하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뜻 있는 이들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일일이 구체적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만연한, 갈등과 대립만을 양산하는 이익집단들의 행태 그리고 그에 대한 언론과 당국의 반평화적 접근 방식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무교가 지닌 갈등 해소와 중재의 담론을 (재)발견함으로써 평화 실현자(peace-maker)로서의 토착종교의 영성과 그 역할을 천착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통적인 무당의 마당굿을 마당극으로 현대화시킨 채희

1) 참조: 윤이흠, <세계문화사의 맥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종교와 문화>, <<종교와 문화>> 1(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37-57쪽.

2) 참조: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분도출판사, 재판: 2003, 178-184쪽.

3) 참조: 같은 책, 237-240쪽.

4) 참조: R. Friedli,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p. 17.

완에 따르면, 무교의 영성이란 ‘노선의 차별성은 인정하되...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급진과 보수 등의 대립으로 보지 않음. 서로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한 생명체로서 나눌 수 없는, 나누면 각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여다, 아니다’[不然其然]라는 원순 관계의 두 갈래이자 또한 하나로 파악”된다는 것이다.⁵⁾

이하에서는 한국 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무교의 평화 실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하면서 남북 분단과 동서 분열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무교가 제시하는 평화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실천의 길을 모색한다. 그렇게 모색되는 길이란 군사주의(militarism)가 남긴 분열과 갈등의 땅 위에서 조화와 화해를 찾아내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는 평화 기행의 여정을 위한 길이다.⁶⁾

II. 무교의 평화 개념과 평화 인식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무교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민중과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온 피지배층의 전승(little tradition)으로서 질병이나 불행에 대한 설명 체계의 역할을 맡아 왔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로의 이행시기에는 토착문화와 한국적 전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무교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무교는 이제 한국적 성격 내지는 한국인다움(Korea-ness)의 표지로 재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⁷⁾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열정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교를 한국문화의 본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종교의 고유 전통으로 부각시키기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무교는 남북의 정치적 분단과 동서의 경제적 분단이라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동질성(同質性 homogeneity)을 회복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이루는 공통의 기반으로 작동할 문화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격상된 무교의 이미지는 1970년대 이후 한 동안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5) 채희완, <굿과 한국 공연 예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사만 유산의 발견>>(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 1998, 73쪽.
6) 참조: E lbert W . Russell, "Christentum und M ilitarism 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 Huber/ G . L iedke, Stuttgart/ M unchen, 1974, p. 21-33.
7) 참조: Michael Pettid, <Nationalism and Shamanism>, <<종교연구>> 22(한국종교학회, 2001/봄), 43-68쪽.

반체제 민주화운동의 수단이 되었다. 무교와 관련한 제주도민들의 경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구한말⁸⁾과 해방 직후 이념 분쟁⁹⁾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다른 고난을 겪어야 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무교는 역사적 자치를 주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시위 학생들이 부흥시킨 무교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로 새롭게 평가되면서 민족주의적 각성의 기폭제 노릇을 해오고 있다.

무교는 이제 민족적 동질성과 한민족에게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보전해야 된다는 독립정신¹⁰⁾의 매스터 내러티브(master narrative)로 작동한다. 무교의 언술들은 이제 화합, 관용, 자비의 정신을 고취시킨다. 그리하여 한국의 샤머니즘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문명간의 충돌, 종교간의 갈등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평화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 무교가 갖는다고 주장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령과의 조화로운 일치에 대한 두둔”(a predilection for harmonious union with fellow human beings, nature and the gods)이라는 것이 굳이 무교만의 특성인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¹⁰⁾ 키스터(Daniel Kister)에 따르면, 가톨릭이나 유교도 나름대로 다 이와 같은 조화(harmony) 내지는 평화(peace)를 지향한다는 점을 들어, 무교만이 배타적으로 한국인의 품성(a Korean ethos)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한국 무교연구에서 아직 미해결의 문제(open question)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여하간 평화 부재에 대한 체험이 전통적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표현된다면, 한(恨)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만 하다. 한국의 토착종교로서 무교가 제시하는 평화실현의 단초는 그래서 한풀이라는 개념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풀어진 한 내지는 성숙한 내면의 자세로 반평화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전화위복의 자세로 맞아들일 준비가 된 한맛이¹¹⁾의 결과를 한

8) ‘이재수의 난’으로 세간에 알려진 구한말 신축교안(1901)의 종교-문화적이고 정치-경제적인 복합적 충돌 양상과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그러한 충돌의 도화선이 되었던 당시 제주도민들과 천주교 측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는 필자가 최근에 다룬 적이 있다: 박일영, <구한말 토착종교와 가톨릭의 만남. ‘수신영약’(1900)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 가톨릭연구단 편,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1>>, 가톨릭출판사, 2003(근간).

9) 제주 4·3 사건(1948)을 주제로 다루는 이른바 ‘시국굿’에 대하여는 김성례, <제주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연구>> 4(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91), 9-28쪽을 참조하라.

10) D. Kister, “Response to the Paper of Michael Pettid, ‘Nationalism and Shamanism: Creating Possession with Shamanic Ritual’”, in: <<종교연구>> 22(한국종교학회, 2001), p. 79.

국 무교에서는 재수'라는 개념으로 파악해 오고 있다.¹¹⁾

전환과 변혁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향해 “기쁨과 희망”을 준비하였다.¹²⁾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 때에, 현대 사회 안에서 종교는 일견 사역화(私域化 privatization)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나, 다른 한 편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종교와 영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 스위스의 종교학자 프리들리(R ichard Friedli)는 이렇게 말한다:

[평화 실현을 위한 종교의 역할]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응용하고 또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는 문제는 마하트마 간디나 틱낫한, 혹은 한스 쾅이 걸어간 삶을 보면 알 것이다. 이 세 명의 탁월한 인물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강한 끈기를 요하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할 따름이다. 내가 서두에서 르완다 인종학살, 그 이후에 대해 언급한 것이나, 역시 내가 관여하고 있는 W CRP[W orld Conference for Religion and Peace, 세계종교인평화회의]에 대해 소개한 것도 단지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누군가 이 긴 호흡'을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다.¹³⁾

무교의 기본 특성은 무경전, 무교리라는 것이다. 교단이나 종단에 의하여 공인된 경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일정한 교리도 없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원시종교의 유치한 미숙성이나 야만성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릴 성격이 아니다.¹⁴⁾ 경직된 종교의 사상은 교조화된 독단에 흐를 위험을 안고 있다. 그것은 뒤이어 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절대진리 보유권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며,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개종의 강요와 종교[를 빙자한] 전쟁, 이른바 성전(聖戰 Jihad)이나 의전

11) 참조: 박일영, 앞의 책, 185-194쪽.

12) <기쁨과 희망.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383쪽.

13) R. 프리들리,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 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 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0년 6월 1일, 20쪽.

14) 그리스도교 평화주의(pacifism)를 내세우는 퀘이커의 경우에도 따로 교리가 없다. 참조: Elbert W. Russell,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G. Liedke, Stuttgart/ München, 1974, p. 96; 최만자 외, <기독교 평화운동: 어디로, 어떻게?>, <<새길 이야기>> 9, 도서출판 새길, 2003/여름, 25쪽.

(義戰 bellum justum)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¹⁵⁾

무교가 지닌 관용(tolerance)과 포용성, 수용성 그리고 유연성, 탄력성, 가소성(可塑性 plasticity)은 현대 세계 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바와 같은, 독단과 교조적 자세로 인하여 벌어지는 절대성 요청(Absolutheitsanspruch), 배타적 진리보유권 주장(Wahrheitsrecht), 그에 따르는 종교간 갈등이나 종교분쟁, 종교를 빙자한 전쟁의 빌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의 평화 개념과 평화에 대한 인식은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영성적 요소요, 종교적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무교에서는 평화사상이 인간에 대하여 시종여일한 긍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인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dualism)의 잣대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고 일싸안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절대 긍정"의 자세를 그러한 무교의 자세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¹⁶⁾ 그것은 또 한국종교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무교의 현대화라고 해석할 소지를 담고 있는, 동학/천도교 사상에서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시천주(侍天主), 양천주(養天主), 인내천(人乃天) 및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으로 정리되기도 한다.¹⁷⁾

Ⅲ. 무교의 평화 실천

각 문화는 역사를 통해 간직해 온 이상이 있고 뛰어난 인물들은 그 이상을 증진시킨다..... 조화와 평화는 문화적 이상이다..... 덕망 있는 사만은 전통적

15) 종교분쟁이나 종교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 종교들의 원리주의자 내지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 종교가 무조건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승리주의 내지 개선주의(triumphalism) 등도 이러한 노선에 속한다. 이들은 같은 종교의 테두리 내에서도 비폭력(non-violence)을 주창하는 평화주의(pacifism)을 내세우는 종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스도교의 경우에 평화주의 노선을 택하는 종파들로는 재세례파, 유니테리언, 퀘이커 등을 꼽는다. 참조: Elbert W. Russell, 앞의 책, 33-55쪽: "Gegenwärtige Einstellungen von Christen zum Militarismus".

16) 퀘이커들이 말하는 각 사람 안에 빛이 있다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여기서 빛이란 그리스도, 영,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뜻으로 새겨진다. 참조: 같은 책, 96쪽.

17) 참조: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1996, 111-134쪽;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해안, 2001, 225-236쪽.

지혜의 계승자로서 문화적 이상의 실현을 주장한다.”¹⁸⁾

위에서 인용한 일본의 어느 종교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무교의 문화적 이상은 조화와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 실천의 맥락 속에서는 화해, 한풀이, 한맛이 등으로 나타난다. 무당굿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공수와 덕담’ 속에서 평화에 대한 확신과 전망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채수’을 획득하게 된다.¹⁹⁾

그것을 우리는 신바람의 영성으로서 참된 평화를 회구하는 무교의 ‘뜻정신’²⁰⁾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들숨과 날숨의 ‘큰 호흡’²¹⁾으로 감지하는 무교의 영성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격으로 정리한다. 즉, 공동체적 종교성으로서의 민중의 공감, 삶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사적 성격을 드러내는 한풀이와 한맛이, 그리고 종교의 현장성을 곁판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의례공동체의 연대감으로서 말이다.²²⁾

진정한 평화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파괴하려는 힘에 대한 대립적 차원으로 나타난다. 일상사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경험들은 비(非)평화요, 반(反)평화의 사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에 대한 대조경험(contrast experience)으로서 평화를 유추하고, 행동 속의 희망으로 참 평화를 찾아 나서게 된다.²³⁾

무교의 맥락에서 구체적 예를 찾아보자면, 탈춤의 진행과정이나 무가의 내용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불의와 폭력에 대한 폭로와 저항으로서의 몸짓(gesture)과 언술(parole)이 있고 나서, 저항적 비폭력운동으로서의 민중 언어와 화해의 제스처가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다. 채희완은 이러한 모습을 마당굿과 연관지어 이렇게 말한다:

18) Hirofumi Tsushiro, <전통적 영지의 계승자 샤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샤만 유산의 발견>>(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 1998, 62-63쪽.

19) 참조: 박일영, 앞의 책, 185-194쪽. 그리스도교 식으로 말하자면, 하느님이 주시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을 동반하는 총체적 완성과 구원으로서의 샬롬(shalom) 혹은 에이레네(eirene)이다. 참조: Friedli, R.,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p. 49-89: "Dimensionen des Schalom-Begriffs".

20) 박일영, 앞의 책, 178쪽.

21) R. 프리들리, 앞의 글. 각주 9번을 보라.

22) 참조: 박일영, 앞의 책, 178-184쪽.

23) 참조: R. 프리들리,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89, 27-32쪽.

마당굿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인 마당'을 매개로 하여 거기에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문명사적 문제가 동시에 초칭 결합되는 것으로 신, 자연, 우주, 역사가 하나가 된 우주적 일체성 위에 인간의 삶을 엮어가며 사회적 형성(靈性) 속에서 인간과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해 감을 예시해 준다.²⁴⁾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작두날 위에서 맨발로 벌어지는 무당의 춤과 풍수'라는 현실적 치열함의 상징행위로 나타난다.²⁵⁾ 또는 바리공주 무가'가 말해주듯이, 한 목숨 내어 던지는 자기헌신이라는 자세로 이어진다.²⁶⁾ 소외계층에 대한 헌신은 바로 바리공주가 보여주는 본보기의 요체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 속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종교공동체로서의 '굿판'과 노동공동체로서의 '뚜레'가 한결 같이 보여주는 평화적 공존과 공동체의 주체적 관계 속에서의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의 제시라 할 것이다.²⁷⁾ 여기에서 무교를 대표하는 무당의 역할은 중재자(peace-maker)이며, 화해자요, 평화교육자로서 신령과 인간을 중재하며,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이 생태 환경과 더불어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를 깨우쳐 주고 그러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평화교육자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무교가 가진 그와 같은 장점은 생명력과 적응력이라는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 표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주류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²⁸⁾ 무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끈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으면서도, 사회적 인정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희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²⁹⁾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서 특히 유교로부터 사회적 명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무교 전통 자체의 한계로서 점복을 위주로 하는 아류적인 무당, 즉 선무당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무교 신앙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무교 집단이 사회의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24) 채희완, 앞의 글, 73쪽.

25) 참조: 현영학, <민중신학과 한의 종교>, <<신학사상>> 47(한국신학연구소, 1984/겨울), 762-773쪽.

26) 참조: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233-288쪽.

27) 참조: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30-38쪽.

28) 참조: 박일영, <단오굿을 통해서 본 한국 무교의 이중적 실재>, <<샤머니즘연구>> 4(한국샤머니즘학회, 2002), 165-198쪽.

29) 참조: 이희정, <현대 한국인의 삶에서 무(巫) 신앙의 의미>, <<종교연구>> 24(한국종교학회, 2001), 141-181쪽. 이하의 논의는 별다른 논거의 제시가 없는 한, 이희정의 연구를 약술하기로 한다.

다. 천신 계통의 신령으로부터 시작하는 넓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신령을 섬기면서 화합과 평등, 질서의식을 체현하는 큰무당에 비하여, 아류무당은 조상신령이나 사령에 국한하여 축소 지향적이고 편협한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분석에 이어서 이회정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평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근본적 장애가 되는 종교적 갈등³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교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한다. 하나는 무교가 한국종교문화의 구성에 있어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표층종교에 대비되는 기층종교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무교가 평등주의, 개방성, 포용성을 사유방식³¹⁾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교간의 조화와 균형은 미래 사회의 안정과 평화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회정은 무교 신앙 특유의 유연성으로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로, 김성례와 베르노 슈토펔의 연구를 인용하여, IMF 경제 위기에서의 사회통합 기능을 들고 있다.³²⁾ 여기서 이회정은, 한국인들이 외적으로 표방하는 종교의 신념 체계나 정서에 따라 자기 삶을 영위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³³⁾ 그 대신 무교적 신념과 가치가 일상적 삶의 숨은 척도로 기능하면서, 정신적 원동력이 될 가능성을 보는 듯 하다.

무점(巫占)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한국인이 겪고 있는 갈등[反平和]의 주원인은 ‘쫄상바람’이라고 한다.³⁴⁾ 현대사 속에서 전쟁이나 빈곤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의 죽음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평화의 부재를 죽은 조상과의

30) 한스 쾅,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분도출판사, 1992. 이 저서에 일관하는 주장으로서 한스 쾅의 유명한 명제에 따르면 “종교간 대화 없이 종교간 평화가 없으며,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는 것이다.

31) 참조: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309쪽.

32) 김성례, <기복신앙의 윤리와 자본주의 위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심포지엄 논문, 1999; Berno Stoffel, <Anomie and Korean Shamanism. An Analysis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d its Consequences of Korean Shamanism>, <<샤머니즘연구>> 3(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297-344쪽.

33) 한국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종교들의 신념체계와 거의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 갤럽이 1984년, 1989년 그리고 1997년도 3차례에 걸쳐 조사하여 보고서를 낸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일례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종교에 상관없이 대략 20-30%라는 비슷한 비율로 윤회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상기숙, <무점의 실태>, <<한국민속학>> 16(한국민속학회, 1983); 이용범, <<한국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20쪽.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회복하며, 평화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무당들은 여러 조상 신령들을 모시고 뒤틀어진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고 인간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넓은 사회적 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천신 계열의 신령들을 모시면서, 나라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중요한 메시지인 평화 실현의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세간에서 큰무당으로 인정받는 무당들이 내림굿을 할 때에 반드시 천신(天神)을 먼저 모셔들이는 절차³⁵⁾는 평화론(Irenology)의 시각에서 해석해 볼 소지가 있는 셈이다. 덧붙여서, 한국 신종교(운동)을 들여다 볼 때 해원과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천지굿이나 천지공사는 무교 평화운동의 현대화 본보기라고 해석해볼만한 소지를 가지는 셈이다.³⁶⁾ 이것은 바로 무교적 세계관의 폭과 조화, 평화, 재수, 구원의 실현을 위한 영향력이라고 해석되는 신앙의 사회적 영향력이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IV. 무교 평화운동의 미래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지구 평화, 아니 인간 종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오늘 인류의 모습을 김열규는 후기 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후기 자연(post-nature)의 파괴³⁷⁾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근대화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무엇이 되었던 용인된다는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 가지는 잔혹성과 야만성의 그림자가 21세기 문화와 영성이라는 빛의 시대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³⁸⁾

한국 무교의 현황 역시 무교의 본래 정신으로서의 긍정신, 𡇗의 영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태이다. 무교 신앙에서 평화실현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의식은 퇴락하고, 걸핏하면 호사가들의 기호품이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들이 마지못해 찾는 마약처럼 일회용(instant)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 어떠한 현실에도 좌절하지

35)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거르나파에 만신 희나백성의 노래>>, 문덕사, 1995, 321-323쪽: “명받기(산맞이)”.

36) 참조: 이호재, <<한국 신종교사상에 나타난 무교적 요소. 동학과 증산 사상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1, 64-78쪽: “해원과 조화”.

37) 김열규, <샤만 유산의 발견. 동북아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샤만 유산의 발견>>(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 1998, 7쪽.

38) 참조: 박노자, <파시즘의 뿌리는 너무나 깊다>, <<한겨레 21>> 475(한겨레신문사, 2003. 9. 18), 113쪽.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는 무교의 평화교육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궁극적 평화[재수, 살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반평화적 의식과 행위는 생태 환경의 파괴에 주범으로 인식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산과 강변에서의 쫓불 켜 기, 아무 데나 제물 버리기, 심지어는 남의 묘에 쇠말뚝 박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위 ‘무속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웃과 주변을 위한 배 풀음, 만물의 조화를 추구하던 정신으로서 무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변 화에 발 맞추어서 의식을 계발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생태환경의 파괴 등 반 평화적 행태 에 대한 반성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그것은 오늘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의 회복 을 중심적 과제로 삼는 에코 센트리즘(eco-centrism)의 주장이기도 하며, 생태론 과 연계되어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네오 샤머니즘(neo-shamanism)의 각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³⁹⁾ 네오 샤머니즘은 개별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집단 운동이며, 현대인의 정신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자연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 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샤머니즘은 어떤 면에서는 미신이니, 야만이니 하면서 서구 모더니즘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최대의 희생자이기도 하다.⁴⁰⁾ 이제부터라도 문화 및 사회 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화 교차적 현상으로서 무교를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겠다. 반구대 암각화로 알려진 경남 울주군 대곡리의 바위그림은 선사 시대 우리 조 상들이 그린 일종의 무당 그림[巫畵]이다. 인간과 각종의 동물들이 하나로 소통하 고 있는 커다랗게 열린 화폭을 만나게 된다. 거기서 우리는 천지만물에 정령⁴¹⁾이 깃든다는 애니미즘(animism)의 긍정적 요소를 발견한다. 이제 세상에 열린 종교 로서 한국의 무교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실행하여야 할 평화운동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무교는 자신이 가진 종교성 내지 영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 긍정신을

39) 참조: 김열규, 앞의 글, 7쪽; Dirk Schlotmann, <Neoschamanismus in Europa insbesondere in Deutschland>, <<샤머니즘연구>> 5(한국샤머니즘학회, 2003), 173-184쪽.

40) 참조: 주강현, 앞의 책, 12-22쪽.

41) 정령은 넓게 보아서 하느님의 숨결, 들숨날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말하는 대로라면, 하늘과 인간이 통하는 것은 바로 그 둘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영 명성(靈明性)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영성이라고 줄여 불러도 좋지 않을까? 참조: 김승혜, <무언(無言)의 하느님. 東亞 전통에서 우리나온 그리스도교 신 관>, <<신관의 토착화>>, 사목연구총서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65-270쪽: “다산(茶山)의 천관(天觀)이 주는 영감”.

현대 사회에 맞게 가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무교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만민을 평등하게 대하며, 오히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종교이다. 그런가 하면 후기 근대(post-modern) 사회구조에 적합한 신앙실천 형태로 소집단 신앙운동의 틀을 애초부터 갖추고 있다.⁴²⁾ 무교의 유연성은 개인적인 신앙경향에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로, 무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적인 조직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대 정보기술은 문명사회에 전혀 새로운 양상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21세기 정보기술 사회의 혜택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원초적'이라는 무교는 이미 역설적이게도 '최첨단'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활발한 종교형태로 등장하는 중이기도 하다.

셋째로, 종교간 대화와 교류에 무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황해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녀 김금화와 그의 일행이 2001년 조선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원장: 김몽은 신부)의 연례 학술회의에 참가하였던 사실이 있다. 김금화 일행은 가톨릭, 개신교,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여러 종교에서 참석한 150여명의 대표자들 앞에서 황해도 재수굿을 시연하고,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대화에 참여하였으며, 서로간에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쌓은 감동을 안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넷째로, 무교인 스스로 사회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교 자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서도, 신앙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무교인의 성숙한 자세를 위하여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와 더불어 자연환경의 파괴나 소음 발생,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는 일은 무교인 뿐 아니라, 종교인 모두에게 요청되는 평화지향적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마치 전투를 치르듯이, 식민지 쟁탈 식의 길거리 선교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아무려나 화해의 노력, 막힌 담을 허물기 등 의식의 계발과 바른 실천은 결국 인간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무교와 무교인은 뒤틀린 관계의 정상화에 특히 장점

42) 한국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활로를 소집단 신앙실천에 두고서 최근 소공동체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모델을 어디 외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토착신앙에서 배워보겠다는 자세를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일까?

을 지닌 종교로서 한국의 종교문화계에서 맡을 고유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공존과 상생의 질서를 따라 평화를 구현하는 일이다. 흩어지고 변질되어 가는 전통을 바로 세우고, 양극화된 간극을 메우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무교인의 몫일 수 있다. 이제 무교인은 영적인 안내자요, 사회의식을 갖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V. 결론: 평화의 실현을 위한 종교평화교육

이하에 소개하는 인용문은 마을굿 비나리의 내용으로, 동네 평안을 비는 구절이다. 우리 이웃들이 어떠한 소망과 염원을 담아 평화를 빌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뉘도 탈도 없이 하여주시고, 재 넘어 들어오는 귀신 물 넘어 들어오는 귀신 물리치고, 신실이 적절이 물리치시길.”⁴³⁾

평화 실현자로서의 무교의 위상을 오늘 여기서 다시금 규명함으로써, 심각하게 야기되어 유포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정신적인 불안감을 정리하며 종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희망을 찾아내게 한다. 민족 공동체의 삶 속에서 문화의 보존과 조화/평화의 전승이라는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전통 종교로서 무교와 평화 실현이라는 역할을 관련지어 보면,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실천을 기대하게 되는 평화실현에 대한 희망의 뿌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근거(根據)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안에서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당혹감으로 바라보았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 2003년 여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북한의 소위 “비녀 응원단”들이 보여준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련된 동작과 미소로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던 그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비를 맞자 화를 내고 울면서 철거하던 장면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남과 북이 반세기 동안 갈라져 살면서 얼마나 근원적으로 달라져 있나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⁴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화심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평화의 감수성이 개발되어야 한다. 감수성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해결책이다. 인간 삶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문

43) 주강현, 앞의 책, 132쪽.

44) 관련 기사 참조: <<한겨레 21>> 475(한겨레신문사, 2003. 9. 18), 16-21쪽.

화의 핵심에는 종교가 자리잡고 있다. 평화심성을 기르는 평화교육이 곧 종교 교육의 요체가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는 전면적인 변화로서 혁명을 요구한다. 혁명적 조건에서라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모순[恨]과 개인적인 어려움[怨]이 얹히고 설킨 악순환의 고리를 부수려는[한풀이, 고틀이] 일면 단호하면서도[작두 타기] 다른 일면 화해의 자세가 갖추어진 몸짓[덕담, 난장]이라고 풀어낼 수 있다. 국판의 신명과 어울림, 화해와 조화는 바로 진정한 평화, 총체적 평화로서 “채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실천이 아우러져야 한다. 국이 보여주는 대립적 공존”은 이를 반영한다.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기분을 풀 수 있는 집단 놀이이자 제의요 회의로서 말이다.⁴⁵⁾ 전향적인 자세와 근본적 변화만이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감행되는 것이다. 빈중의 혁세(革世) 지향적 대망(待望)⁴⁶⁾이 민중신앙으로서의 무교에, 다시 말하여, 국정신에 나타난다. 실감나는 무교의 표현대로라면 “뭇 물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채수 사망 섬겨주시는” 그런 세상, 한국의 신종교들이 말하는 후천개벽의 세상,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거므나빠에 만신 회나백성의 노래>>, 문덕사, 1995.
 김승혜, <무언(無言)의 하느님. 東亞 전통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신관>, <<신관의 토착화>>, 사목연구총서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64-295쪽.
 김승혜 · 김성례, <<그리스도교와 무교>>, 바오로딸, 1998.
 김인회, <<한국 교육의 문화적 기저에 관한 연구. 무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1996.
 박노자, <과시즘의 뿌리는 너무나 깊다>, <<한겨레 21>> 475(한겨레신문사, 2003. 9.

45) 참조: 주장현, <<국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166-233쪽: “대동제의 · 대동회의 · 대동놀이”.

46) 주장현, 앞의 책, 16쪽. 이어서 주장현은 구체적 사례로,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바뀌기를 염원하던 조선시대 무당들이 개성 덕물산 신당에서 성계육(成桂肉 = 최영 신당에 바친 돼지고기)을 씹으면서 반평화에 대한 저항정신을 기르고, 새로운 세상을 지향했다고 적고 있다.

- 18), 113-114쪽.
- 박일영 외, <<종교와 영성>>,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일영, <단오굿을 통해서 본 한국 무교의 이중적 실재>, <<샤머니즘연구>> 4(한국샤머니즘학회, 2002), 165-198쪽.
-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 총서 9, 분도출판사, 재판: 2003(1999).
-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분도출판사, 2003(근간).
- 상기숙, <무점의 실태>, <<한국민속학>> 16(한국민속학회, 1983).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샤만 유산의 발견>>(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 1998.
- 윤이흠, <세계문화사의 맥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종교와 문화>, <<종교와 문화>> 1(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37-57쪽.
- 이용범,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호재, <<한국 신종교사상에 나타난 무교적 요소. 동학과 증산 사상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1.
- 이희정, <현대 한국인의 삶에서 무(巫) 신앙의 의미>, <<종교연구>> 24(한국종교학회, 2001), 141-181쪽.
- 정혜정, <<동학 · 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해안, 2001.
-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 최만자 외, <기독교 평화운동: 어디로, 어떻게?>, <<새길 이야기>> 9, 도서출판 새길, 2003/여름, 25-61쪽.
- 최창무, <평화 - 하느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과제>, <<가톨릭 신학과 사상>> 1(가톨릭대학교, 1989), pp. 6-21.
- 뤽, 한스,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분도출판사, 1992.
- 키스티, 다니엘, <<삶의 드라마. 굿의 종교적 상상력 연구>>, 서강대 출판부, 1997.
- 프리들리, R.,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89.
- 프리들리, R.,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새 천년과 평화 - 종교의 역할>>, 제 3회 국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7-61쪽.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의 위기와 종교>>(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종로성당, 2001.
- 현영학, <민중신학과 한의 종교>, <<신학사상>> 47(한국신학연구소, 1984/겨울), 762-773쪽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 Brenneman Jr, W.L. · Yarian, S.O. · Olson, A.M., The Seeing Eye. Hermeneutical Phenomenology in the Study of Religion, The Pennsylvania State UP,

1982.

Fraas, Hans-Jürgen, Die Religiosität des Menschen. Religionspsychologie, UTB Vandenhoeck, 1993.

Friedli, R.,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Friedli, R., "Zivilisierung von Gewalt? Fanatische Strukturen und buddhistische Affektkontrolle", in: Lähnemann, Johannes, Hg., Interreligiöse Erziehung 2000, Hamburg, 1998, pp. 149-157.

Küng, Hans · Kuscherl, Karl-Josef, Erklärung zum Weltethos. Die Deklaration des Parlamentes der Religionen, München-Zürich, 1993.

Pettid, Michael, "Nationalism and Shamanism", in: <<종교연구>> 22(한국종교학회, 2001), pp. 43-68.

Russell, Elbert W.,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G. Liedke, Stuttgart/ München, 1974.

Schlottmann, Dirk, <Neoschamanismus in Europa insbesondere in Deutschland>, <<샤머니즘연구>> 5(한국샤머니즘학회, 2003), 173-184쪽.

원고접수: 10월 26일 1차심사: 11월 13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서대학원장 겸 종교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비교종교학, 샤머니즘, 한국종교와 그리스도교

③ 주요논저: <한국무교의 이해>,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Pilgrims in dialogue>

④ E-mail: onezero@ catholic.ac.kr

The Role of Korean Shamanism for Peace Actualization - From the Viewpoin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Park, Il-Young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is is very important transition period for Korea domestically and externally. In this time and in this society the role of religions for the peace actualization has relatively big importance more and more. Especially Korean shamanism as indigenous religion has the role of peace-maker in ad-hoc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g out academically such kind of religious task.

Korean shamanism as indigenous religion operates as the basis of Korean religiosity even nowadays. Such character makes Korean shamanism to do the mission of peace actualization which Korean society inevitably needs. With the awareness about that context I want to find out the role and meaning of Korean shamanism as indigenous religion from the viewpoin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This kind of work has enormous efficiency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in a society with religious pluralism like Korea.

If we match the role of shamanism as preserver of traditional culture and at the same time as realizer of peace in the national community, we could find out the root of hope about peace-actualization, expecting in the contex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re-discovery of such basis would present the frame or paradigm for religious peace education that reconfirms the cultural tradition in human society where human beings manage their life with fellow living creatures..

Key words: peace, shamanism,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religious peace education.